



지난해 12월 29일(현지시각) 유세 중인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왼쪽)과 아이오와주 카운슬 블러프즈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2016 지구촌 기상도

美 대선·中 경제 위기...적변기 맞은 G2

2016년. 지구촌 기상도는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전히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는 암울한 전망이 이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유럽통합'을 향한 유럽연합(EU) 호(號)도 올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 대선 향방은

글로벌 경제·안보에 중대 영향

2016년 미국의 '빅 이벤트'는 단연 대통령 선거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일은 내년 12월 9일이지만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뽑는 11월 8일을 사실상 대선일로 여긴다. 대선이 불과 10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동안의 정치 이벤트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리더가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의 대통령에 선출되느냐가 글로벌 경제와 안보 등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선거 쟁점은 테러와 국가안보, 총기규제, 이민개혁과 난민수용 문제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국무장관 재직 시절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다는 논란과 고액 강연 시비, 클린턴 재단의 후원금을 둘러싼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됐고,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돌풍이 잠시 부는 등 시련의 시기도 있었지만 모두 미봉에 그쳤다. 공화당에서는 반짝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였던 '트럼프 돌풍'이 7개월째 이어지며 이제 그의 최종 후보 지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처럼 트럼프 돌풍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것은 지난 10여년의 경기침체와 사회의 양극화, 테러와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 정부 섣다른 등이 되풀이되는 위상된 정치에 대한 혐오 등이 어우러져 정치권 밖 국민적 인물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암울한 중국경제

30년 고성장시대 막 내리

중국 사회과학원은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6.7% 수준으로 예상했다. 중국 내외의 기관들의 예측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각각 6.7%를 제시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5%, 국제통화기금(IMF)은 6.3%를 전망했다. 이는 지난 30년간 이어진 중국 경제의 고성장 시대 막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회복세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음을 확인해주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지난 수년간 중국의 경제 활력은 지속적으로 하강세였다. 구조조정 상황에 직면한 산업성장세에 수출과 투자가 급격히 줄고, 소비 여력이 약화하면서 디플레이션 조짐도 나타났다. 특히 기존 주택으로도 34억~40억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공급이 과잉으로 치달으며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기둔화는 특히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다. 국제원자재가격지표인 CRB지수는 지난해 15% 하락했다가 올해 27% 하락했다.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철광석 가격은 지난해 절반으로 떨어진 후 올해 또다시 반토막이 됐다. 14억 인구의 중국이 경기침체로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한국을 비롯한 기존 교역국의 경제도 모두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중국의 경기둔화는 전세계 경제의 동반 둔화를 가져올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런 외증에도 중국 경제는 세계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키우며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조금씩 흔들 가능성이 있다.

흔들리는 EU호

영국 이탈·난민 물결에 '출렁'

EU 호에 배를 집어삼킬 만한 '브렉시트'(영국의 EU 이탈)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유럽 난민 위기의 폭풍우가 덮친 탓에 선원들은 이미 내분에 휩싸였다. 이르면 오는 6~7월 영국에서 EU 잔류·탈퇴를 묻는 국민투표가 치러진다. 1991년 EU 출범 이후 탈퇴 여부를 묻는 회원국 국민투표는 처음이다. '확대와 통합 심화'를 향한 그간의 대여정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렉시트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다.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는 2010년 처음 불거졌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질서있는 그렉시트'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렉시트 위기가 정점으로 치달은 순간에도 유로존이 개혁을 수용하며 그리스를 버릴 결심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던 데에는 '질서있는 그렉시트'에 대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브렉시트는 사정이 다르다. EU를 떠날치고 이끌어온 영국·독일·프랑스 삼각체제 한 축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브렉시트는 EU에 미증유의 사태다. 영국과 EU 관계가 어떻게 다시 설정될 것인가? 쪼그라들었지만, EU 체제가 유지될 것인가? '전원 효과'로 이어질 것인가? 헤아릴 수 없는 의문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의문들은 공동체 출범 목적과 목표들, 그간의 성패들 등 EU 존재 자체에 대한 재조명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작년 한 해 100만명을 돌파한 유럽 난민 유입이 탈퇴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촉발했던 건 반(反)이민정서다. 올해에도 지속되는 중동과 아프리카 내전은 유럽 대륙의 난민 물결을 계속 자아내면서 브렉시트 여론과 EU 균열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14대장군 '장평후' 위청

위청(衛靑, ?~BC 106)은 전한 무제 때의 장군이다. 산서성 평양 출신으로 무제의 대 흉노 전쟁을 지휘한 용장으로 장평후, 대장군 직위에 올랐다. 그의 출세는 전적으로 누이 위자부 덕이었다. 어느날 무제는 누이 평양공주가 마련한 주연에서 노래를 부른 여가수에게 한눈에 반해 버렸다. 그녀의 이름은 위자부였다. 사기에 따르면 이날 위자부는 무제의 총애를 받았고, 무제는 누이에게 금전금을 하사했다고 한다. 그녀는 황후가 되었고 1남 3녀를 낳았다. 위청도 태종대부로 발탁되었다. 그의 명성이 천하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무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 흉노 전쟁이었다. 장성 이복의 흉노는 한나라에 큰 두통거리였다. 건국 초 한고조 유방은 평성에서 흉노와 일전을 벌였다가 참패하였다. 거의 목숨을

에도 출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BC 124년 마침내 대장군의 직위에 올랐다. 총 7번 흉노 전쟁에 나섰다. 후반은 조카 광거병의 맹활약이 두드러졌다. 광거병은 6차례의 원정을 통해 감속성을 정벌하고 기린산까지 쳐들어갔다. 청년 장군 광거병의 명성이 조야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4세에 요절했다. 그가 성인이 된 후 궁권에 한번 간 일이 있다. 그곳에서 복역 중인 한 죄수를 만났는데 그의 관상을 봐주면서 "당신은 앞으로 귀인이 될 사람이다. 제후에 봉해질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그는 담담하게 "나는 공주 집안의 노비가 낳은 사람이다. 매를 맞지만 알아도 축환을 아는 사람인데 어찌 제후에 봉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는가"라며 반신반의했다고 한다. 대 흉노 전쟁에서 경험 많은 한안국이나 이광이 연패한 반면 그가 연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군사적 재능이 탁월했다. 자치통감에는 "위청은 비천한 노

탁월한 군사 재능으로 흉노와 전쟁 승리

잃을뿐 했는데 책사 진평이 흉노지도자 목목선우의 왕비 연지에게 뇌물을 써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고조는 흉노와 화친조약을 맺었다. 이후 무제 즉위 때까지 화친 기조가 유지되었다. 흉노를 꺾는 것이 한 왕조의 최대 과제였다. 문제와 경제가 재정을 건실히 운영한 덕에 국고는 충실했고 국력이 튼튼해졌다. 야심찬 무제가 대 흉노 전쟁을 시작한 것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었다. 무제 초기 한나라와 흉노는 마을에서 일전을 벌였다. 한나라는 30만명을 동원하여 기습작전을 시도했지만 흉노 지도자 군신선우가 눈치 채고 전군을 철수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다. 마을의 싸움은 국가적 치욕이 되었다. BC 129년 위청 공손오 공손하 이광 등 네 장군이 네 방면에서 출병하였는데 위청만이 상곡에서 출격하여 용성까지 진격해 승리했다. 건국 후 70여년만에 처음으로 이긴 것이다. 위청은 일약 국가적 영웅이 되었다. BC 129년 그는 3만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적 수천을 참수하여 안문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BC 127년 운중 이복으로 나아가 진법에 흉노에게 빼앗긴 오르도스 지방을 되찾았다. 감속성

비 출신이지만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았다. 능력이 일반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났다. 사대부를 만나면 예의를 갖추었고 사방들에게 아주 관대했으므로 모두 그의 지휘를 받기 원했다. 장군의 자질이 있어 때면 출병하여 공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무제때는 대 흉노 전략이 종전의 파동적 방에서 적극적인 공략으로 그 개념이 바뀌었다. 대규모 기병 군단으로 공격하는 기동전을 중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새로운 군사전략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게다가 운도 뒤따랐다. 용성 전투에서 그는 강한 적을 만나지 않은 채 적의 본거지로 쳐들어 갈 수 있었다. 반면에 이광은 흉노의 주력 부대와 대결하여 참패하고 자신은 포로가 되었다. 그는 나중에 평양공주가 남편을 잃어 과부가 되자 재혼 상대가 되었다. 무제의 차형이 된 것이다. 그는 젊어서 하인과 같은 비천한 지위에 있었다. 이에 따라 늘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고 때로는 비굴하기까지 하였다. BC 106년 그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으로 한 시대가 완전한 종언을 고했다. 시달려왔던 무제 전반기가 끝났다. 이후 전한은 내리막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병원최적 2층 상가매매

넓은 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치과 적합

- 전용 289㎡ (2/3 현재 카페인테리어, 1/3 공실)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곤(복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찰송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